

“재단에 대한 소속감·자부심 높여주죠”

조계종사회복지재단, 11월 6일 복지종사자 연수

지난 11월 6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 이사 보경)은 산하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명상과 휴(休)’라는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에 직원을 평균 근무기간이 4년6개월에 불과하다는 사회복지사. 참가자 1백여명이 1박 2일 동안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경기 명상과 좌선체험을 하며 소진 예방에 나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정기 연수 프로그램은 1년에 4차례 정도 이뤄진다. 시설장, 실무책임자, 신입 등 대상별 연수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전체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이 한 차례 더 준비돼 있다. 프로그램은 매년 탄력적으로 운영되지만 강점을 두는 것은 불교자비사상에 입각한 불교사회복지인으로서의 마인드 제고와 재단교육이다. 이날 이뤄진 교육에서도 상임 이사 보경 스님은 불교사회복지현장전문가로서의 자세를 강조하며 사회복지자들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불교교리에 비유 강의를 했다. 연수의 실무에 필요한 강의는 따로 보수 교육을 통해 진행한다.

이날 연수에 처음 참가한 임종필 센터장은(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운) “불교와 법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며 “사회복지 시설은 대부분 위탁시설로 타 복지재단 소속이 될 수도 있고 복지사 역시 이직이 많은 직업이지만 교육을 받은 후 재단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지난 10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해빈 스님의 마음치유 특강 역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특성을 잘 살린 강의였다”며 “종중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을 통해 재단 일원이라는 것에 긍지를 느낀다”고 답했다.

타 재단 경우 교육기간 6개월

산하 시설 직원연수가 불교 사회복지인으로서 정체성과 소명의식 확립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데 있다. 개신교의 한 복지재단 경우를 살펴보면 A재단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재단 미션과 비전, 서비스, 실무교육 등을 최소 6개월에 걸쳐 진행한다. 중간마다 필기시험을

1년에 4회 산하시설 직원 연수

개신교재단, 최소 6개월 교육

“명상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필요”

은 실기형태로 테스트를 진행하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 재단의 경우 산하시설이 11개 기관으로, 180여명에 달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비하면 거의 20분의 1 수준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계적 교육이 용이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 A 복지재단 관계자는 “신입직원의 경우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며 “직무, 예절, 서비스 교육은 한 번에 이뤄지기 힘들다. 재단의 가치에 걸맞은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장기적으로 교육을 탄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측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내년부터는 신입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



지난 11월 6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산하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수에서 참가자들이 명상체험을 하고 있다.

다. 복지시설 모체가 되는 재단에 대해 아직 상당수의 새내기 직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하기 때문이다. 1박2일로 진행되는 연수 일정을 2박3일로 늘리고 불교 기반 프로그램도 더 보강할 생각이다. 올해 신입 연수를 수료한 서울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최승(25)씨는 “108배와 발우공양 체험을 통해 불교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단 산하 타 기관 직원들과 교류 폭을 넓힌 것도 최 씨가 꼽은 장점 중의 하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찬수 팀장은 “사회복지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다양한 반대편 실무자 사이의 업무 공유 기회는 적다”며 “연수를 통해 복지담당자간 네트워크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소진예방 나설 계획

이번 연수에서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명상도 복지사들의 정서적 소진 대비를 위해 개별 프로그램으로 독립시켜 진행해볼 계획이다.

‘복지사들의 복지는 누가 책임지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회복지사들이 격무에 시달려온 것은 어제 오날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해가 다할 가이느냐 보호체계, 스트레스 관리법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한 복지사는 동료나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서적 부담을 털어내고는 있지만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진예방법에 대한 강점을 나타냈다.

서 팀장은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복지사들의 마음 관리를 위해 도입한 명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참가자가 많았다”며 “내년에는 재단교육과는 별개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위드아시아, 도담 어린이집 개원

서울시 위탁받아 향후 5년간 운영... 영유아 총 77명 이용중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는 11월 14일 서울 금천구 독산로에 위치한 구립 '도담 어린이집'의 개원식을 개최했다. 도담어린이집은 위드아시아가 서울 금천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향후 5년간 운영하게 된다.

도담어린이집은 1월부터 7월간 6개월간의 공사를 통해 지난 9월 1일 개원했으며 현재 영아 22명, 유아 55명 등 총 77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원식에는 위드아시아 상임이사 혜진 스님을 비롯해 차성수 금천구청장, 정병재 구의회 의장, 어린이집 관계자, 입소 어린이 학부모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해 어린이집 개원을 축하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인사말에서 “도담어린이집의 ‘도담’의 뜻처럼 어린이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위드아시아가 힘써 달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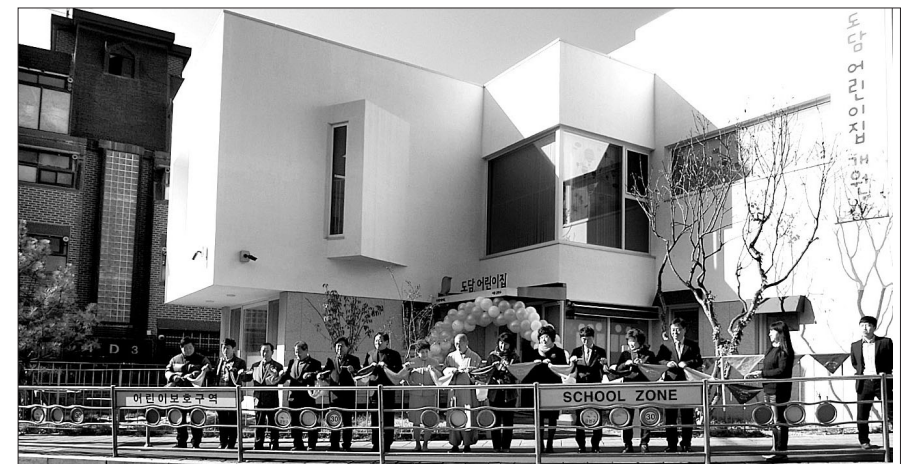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은 “위드아시아에서는 현재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어린이 공부방 사업을 펼치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 사업은 백년을 바라보는 참되고 보람 있는 일이다. 도담어린이집 아이들이 앞으로 맑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법인이 어린이집 교사들과 함께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드아시아는 아시아 지역 빈곤·소외 계층과 국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단체다. 지난 12여 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인도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인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학교 및 공부방 건립과 화장실, 우물설치, 지붕 보수, 기초의약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폭2세 환우 센터인 합천 평화의 집과 연계해 원폭피해자 및 2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서울 도담어린이집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위드아시아가 운영하게 될 도담어린이집이 11월 14일 개원식을 가졌다.

사랑손맛 나눔손맛 듬뿍 버무려

본동복지관, 11월 14일 틈새계층 지원 김장담그기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11월 14일 마을에 나눔을 더하는 두레모듬 사업 일환으로 김장담그기를 실시했다.

복지관 옥상농원에서 진행된 ‘사랑손맛 나눔손맛 알타리김장 담그기’에는 두레모듬사업 참가자인 나눔실천가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그동안 복지관 옥상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알타리무를 이용해 김장김치 담그기를 진행했다.

이날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나눔실천가가 직접 마을지역 내 돌봄이웃 10가정에 전달했다.

참가자 한명은 “김장김치를 받은 지역 주민이 매우 고마워서 마음이 뿌듯했다”며 “나눔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한다. 그때마다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복지관측은 “이날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나눔문



본동복지관 나눔활동가들이 직접 재배한 무로 김장김치를 담고 있다.

화를 확산할 수 있었다”며 “나눔실천가와 이웃간 소통 기회 마련 역시 의미있었다”고 밝혔다.

나눔실천가는 동작구 내 틈새계층(차상위·저소득)을 발굴하여 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물지원 및 재능기부, 일상생활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반짝반짝 광나기~ 11월 13일 서울시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에 구두 닻이 봉사대가 등장했다. 한국기능미화자원봉사회 은평지회가 ‘사랑의 구두닻이’ 활동을 진행한 것. 2010년부터 교박교박 복지관을 찾았으니 햇수로 벌써 5년째다. 이날 22명의 봉사단원들은 복지관 방문 어르신 2백명의 구두를 닻아드리며 담소를 나눴다. 가끔 보는 사이지만 이제 서로 안부도 챙길 수 있을 만큼 낯도 익었다. 복지관 관계자는 “햇수를 거듭할수록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구두닻이 봉사단원 분들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도 많다”고 전했다. 봉사대 역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어르신들께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힘든줄도 모르겠다. 마냥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다문화정착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신사복지관, 학원비 지원 등 프로그램 다양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원)에서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다문화정착지원사업 은평MCM(Multi-culture Movement)참여자 모집한다. 은평MCM은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숨겨진 재능과 강점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서 선주민과 동반자적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재능강화 교육은 월 20만원 이내로 학원비를 지원, 결혼이주여성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주여성 14명을 우선 모집하고 있다.

이외에도 은평MCM은 다문화 토요카페와 소셜마켓, 워크샵 등을 운영하며 다문화 가정들의 원활한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신사복지관에서 열리는 다문화 토요카페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다과를 만들어 팔기도 한다.

배현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8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4년 12월 22일 까지

◆개강일시 : 2014년 12월 22(일요일)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개강일시: 2014년 12월 中 (매주 목)◀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청진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깨달음 우주에너지에서 답을 찾다

우주에너지를 통해서 무의식의 입장을 빠르게 소멸하고, 정화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무의식의 정화로부터 시작 됩니다. 모든 무의식의 관념과 애고의 잘못된 노력은 체내에 탁기로 쌓이게 되어 인생 전반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된 고통과 질병과 관계의 불운을 낳게 됩니다.

모든 무의식은 알아차려 인정 해주고 달래주면 본성으로 회귀하는 것이 섭리인데 억압하고 놓아주지 않아 잘못된 처리 방식으로 인해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쌓이게 되어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돼 자신의 인생에 장애를 주는 것을 불가에서는 업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인정해주고 놓아주고 바라봐주고 달래주는 것이, 체내에 탁한 기운들을 정화해주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인데 잘못된 방식의 수행 풍습으로 인해 3년 정도면 마칠 수 있는 수행을 몇 십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몸에 난 구멍으로 탁한 기운들이(가래, 기침, 눈물, 콧물, 진물, 방귀, 가스, 담음 등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몸이 변하고 마음의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환골탈태가 일어나면서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기운의 변화 믿음의 변화 용기의 수행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 - 깨달음과 인체의 생명 전기장이 바뀐다. 기도수행, 몸수행, 생각, 감정, 의지의 부정성의 청산 방법

인간의 모든 답은 가슴에 있다, 가슴을 열어 업장소멸은 물론 난치병의 자연치유 인생의 장애와 관계의 개선 인생의 의미와 깨달음까지 체험하는 새로운 수행방법

① 깨달음을 찾는 모든 분, 스님과 불자분들

② 업장소멸과, 카르마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고 싶은 분

③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싶은 분

④ 집안의 우환과 가정문제로 고통 받는 분

⑤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

⑥ 하는 일마다 늘 장애를 받는 분

⑦ 병이나 우울증, 조울증, 다양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분

⑧ 난치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신병, 영적인 고통속에서 헤매이는 분, 신병, 무속병

⑨ 기도나, 수행을 해도 인생의 고통이 안풀리는 분

⑩ 인간관계에 늘 고통스러운 분, 부모, 자식, 남편, 사업관계 다양한 분야

■ 상담시간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저녁 6시 까지

■ 상담비용 : 5만원

■ 수행은 상담 후 자신의 근기에 맞게 기운조절

■ 기업체, 인사, 신도회, 신행회 출장강의

■ 강의주제 : 가슴에서 답을 찾다.

■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 카페 : <http://cafe.naver.com/dllbdlbl> 네이버 자각선원

자각선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5층 ☎ 043)296-5258 자각합장